

# “백제불교는 해상 통해 인도서 전래”

### 신카와 토키오 와세다대 교수, 인도-백제-일본 실크로드 주장 ‘고대 동아시아 불교문화교류와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에서

“백제불교는 중국화된 불교를 전래받은 고구려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로부터 직접 전래됐다. 이는 7세기 다시 일본으로 전래됐다.”

백제가 인도와 일본을 잇는 해상실크로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일고 있는 실크로드에서의 경주의 위상 조명과 함께 해상 실크로드에서 백제의 위상 조명이다.

신카와 토키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8월 16일 중국 시안(西安) 섬서사범대학에서 열린 제2회 국제학술회 ‘고대 동아시아 불교문화교류와 실크로드’에서 신라와 백제의 불교 전래가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카와 교수는 ‘불교는 왜 유전(流傳)하였는가’ 주제발표에서 “신라 불교는 중국화된 불교로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한반도 북부를 거쳐 신라로 들어와 호국불교, 귀족불교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신카와 교수는 이어 “반면 백제는 사정이 달랐다. 백제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된 불교 영향으로 중국적인 색채가 덜 묻어나는 불교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신카와 교수는 그 근거로는 백제와 일본

에서 출토된 목간에서 ‘숙세(宿世)’가 공통으로 발견된다는 점을 들었다.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을 가리키는 ‘숙세’는 “모든 인간의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신카와 교수는 “중국화된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의 인과응보 형태를 취했으며 이는 중국화의 상징”이라며 “‘숙세’의 인식은 중국 지도층이 결코 받아들이지

일본 측 ‘일본불교 백제서 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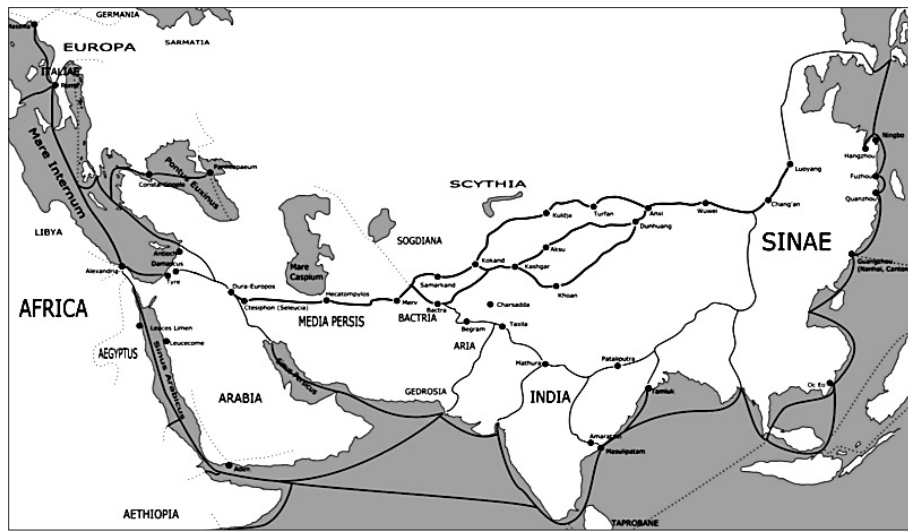
다이건싱 “중 시안 실크로드 기점”

최광식 “신라 경주 실크로드 기점”

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카와 교수는 이어 “백제가 육로가 아닌 해상 실크로드로 인도불교를 바로 받았음을 증명한다”며 “이후 백제불교는 7세기경 일본으로 전파됐다”고 말했다.

신카와 교수는 “흔히 실크로드는 육상만을 설명하는데 해상 루트 등 다양했다”며 “한반도와 일본에 전래된 불교의 흐름을 다각도로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크로드 위키백과 지도. 굵은 선이 실크로드다. 한국 학계의 주장과 달리 아직 경주가 실크로드 기점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눈길을 끈다. 한국학계의 국제공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크로드 기점 두고 한·중 이견

이와 함께 다이건싱 산시사범대 교수는 “신라 경주가 실크로드의 기점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으려면 최근 실크로드 관련 연구의 신동향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실크로드 동단 기점으로 신라 경주를 꼽는 움직임에 대해 반박했다. 다이건싱 교수는 “중국의 시안이 실크로드의 기점이라는 것은 주류 학설계의 공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광식 고려대 교수(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는 ‘실크로드와 한국문

화’ 발표에서 “신라 미술에 보이는 서역, 인도적 요소는 신라와 인도 사이의 교류관계를 증명한다”며 “실크로드 선상에서 경주의 위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고려불화 연구를 심화시킨다면 서역과의 문화 교류 양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다이건싱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와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국제학술회는 8월 15-16일 중국 시안에서 열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사리=전륜성왕 상징’, 왕실 주도로 신봉

### 한국불교학회·월정사 공동 워크숍에서 사리 및 보궁신앙 조명

“한국불교에 사리신앙이 전래된 이후 사리신앙은 시대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장미란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한국 불교학회(회장 김용표)가 8월 19-20일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개최한 여름공동 워크숍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미란 교수는 ‘한국 사리신앙의 중국적 전래와 특징’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사리신앙에는 개국 초 사회불안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포함됐다”며 “왕실 등에서 주도적으로 사리신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장미란 교수는 “이는 전륜성왕의 상징이란 것도 사리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자현 스님은 ‘자장의 오대산 개창과 중대적멸보궁’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자장은 한국불교 계율의 정착자이자, 문수신앙을 통한 화엄과 보궁의 확립자”라면서 “자장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희 국민대 강사는 ‘자장과 한국불교의 보궁신앙’이란 주제 발표에서 “자장



평창 월정사 적멸보궁의 사리탑비

이전에도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보탑신앙(寶塔信仰)이 있었다”며 “‘보탑신앙’이 황룡사 구층목탑의 건립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적멸보궁의 변천과 사상-5대보궁에 대한 종합적 이해(장성재 동국대 문화철학전공 교수 발표) △중대적멸보궁의 역사(이원석 동국대 강의초빙교수 발표) △사리 정의와 사리 숭배를 난해한 고전에서 이해하기(원혜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발표)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 “왕릉 무인상은 불교 사천왕상이 모델”

### 임영애 경주대 교수, 신라사학회 10주년 학술회에서 주장

“그동안 왕릉에서 서역인으로 보던 무인상은 불교의 사천왕상에서 나온 것이다.”

임영애 경주대 교수는 8월 17일 경주에서 열린 신라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128회 학술발표회에서 ‘인식과 재현-미술사적 관점에서 본 신라와 서역’ 발표를 통해 “원성왕릉 무인상은 불교 사천왕상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성왕릉은 조형물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능으로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왕릉 서역인 무인상이 신라의 무역범위를 반증한 것이라는 학계 통설을 뒤집은 것이다.

임 교수는 이날 무인상이 보여주는 사실적 표현을 위해서는 서역인이 신라에 왔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하며, 무인상이 조성된 9세기는 신라가 극심한 혼란을 겪던 때라 서역인이 방문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했다.

임 교수는 “금강역사상 또는 사천왕과 흡사하다”며 “신라 왕릉 조각에 투영된 불교 미술의 영향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주 불국사 사천왕 중 동방지국천왕(좌)과 경주 원성왕릉 무인상(우)

임 교수는 이어 “사천왕상과 흡사한 갑옷을 입은 왕릉의 십이지신상, 불교 사자상을 연상시키는 능역의 사자상 등도 불교의 영향을 의미한다”며 “다만 중국에서 서역인 이미지가 금강역사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에서는 강봉원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의 ‘신라 골품제도 와 율수에 관한 연구’와 조이옥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의 ‘신라와 일본 태제부의 무역’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 학술·문화계소식

### 대장경 관련 세계 석학 한자리 모인다

#### 대장경축전조직위, 9월 3일 국제학술회 개최

고려대장경의 체계를 조명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린다.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9월 3일 서울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고려대장경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체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에서는 루이스 랭카스터 버클리대 교수,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 바바 히사유키 일본 불교대 교수 등 해외 석학을 비롯해 조은수 서울대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신구택 연세

대 교수 등 국내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 해인사 보존국장 성안 스님이 대장경 보존의 현황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학술세미나 이후 호텔에서는 대장경 사진전시 및 인경체험도 개최된다.

대장경축전조직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대장경 정신의 확산을 기대한다”며 “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055)211-6283

노덕현 기자

###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방안 학술세미나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는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나경수 전남대 교수의 ‘불교무형문화유산 정책 방향과 과제’ △구미래 동국대 강사의 ‘불교

무형문화유산의 분류 체계와 조사 기준’ △이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 조사 연구 사례’ 등 논문이 발표된다.

문화부는 “향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2)2011-1770

노덕현 기자

###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 갈등관리 세미나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소장 오영석)는 8월 20일 한국갈등관리학회(회장 최병학)와 동국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와 한국갈등관리학회는 사회적 소통과 신뢰 형성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에 나설 방침이다.

공동학술세미나는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충남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갈등관리 정책분석과 해결방향’과 이병일 경희대 교수의 ‘원자력발전

과 지역신뢰’, 오영석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장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갈등의 치유적 접근’의 주제발표와 이철원(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 송인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학린(단국대)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영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장은 “갈등관리에 대한 비교연구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한국종교연합 ‘불교와 음식’ 포럼

한국종교연합이 개최하는 제68차 평화포럼이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에서 열렸다.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남수)은 8월 27일 천태종 부산 삼광사에서 ‘종교와 음식문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불교와 음식문화’를 주제로 최만순 세계한식문화관광협회 대표와 ‘천도교의 음식과 영성’을 주제로

김용휘 한양대 교수의 발표가 이루어지며 구자상 부산 녹색당 대표와 최선임 한국전통약선연연구소 대표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포럼을 주관하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한국종교연합 공동대표)은 “종교음식을 공유하고 알아감으로써 종교간의 이해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 한국불교 염불선종 창종 선포문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불교는 호국의 종교로서 흥망성쇠와 함께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종파마다 복잡하고 변색한 교리를 앞세워 대립하고 분규와 배척을 일삼았다. 석존께서 열반에 드시고 백여 년이 지난 뒤에 위대한 종교적 인격을 통하여 약동하던 자비지혜 원력의 정신은 없어지고 선종은 선종대로 교종은 교종대로 이기주의 보수주의로 흘러 지금에 이르러 무수한 종단을 탄생시켰다. 한국불교의 화두선 지장주의에서 염불을 폄하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염불은 내가 참 나를 생각하는 것이며 중도실상의 진여 불성인 법신자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누구나 쉽게 근접할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수행법인 우리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 염불에 화두를 붙여 “염불하는 이 자가 누구인가”를 참구하는 방법과 본래의 자성이 부처라는 법신을 관하는 실상염불 수행종단인 염불선종을 창종하고자 한다. 염불선종은 염불선을 중단수행의 모체로 삼고 위로는 석가세존의 교리를 예봉하며 일관된 화쟁사상으로 모두가 일체제자임을 알린 원효성사를 종조로 삼는다. 이에 창종과 함께 창종선언문을 선포한다.

불기 2557년 8월 20일 제정  
불기 2557년 8월 20일 공포시행

총 무 원 :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 1리 백련암  
사 무 소 : 경주 복원사 원효불학원 010-3911-3646

창종주 영운 혜성 합장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 법패 · 작법무 -  
**불교예술평화대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평화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모집학과 : 사미과, 사십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9월 3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안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